

14) 테니스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국공사관 직원과 개화파 인사들이 즐겼다. 특히 개화파의 지도자인 김옥균은 화동의 자택에다 코트를 만들어놓고 푸트공사 부처, 에스튼 영국공사 부처를 초대하여 시합을 했을 정도라고 한다. 당시는 정구라 하지 않고 척구라고 하였다. 김옥균의 정구(테니스) 외교를 당시 보수파 인사들은 “정구장에서 김옥균이 나라를 판다.”고 비방하였다. 그후 탁지부 관리들이 1908년 4월 18일 회동구락부를 조직하고 다음해 5월 2일 미참정 정구 코트에서 여흥식 경기를 가진 것이 공식경기의 시초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테니스는 라켓과 볼의 구입이 어려워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1945년 10월에는 경식과 연식을 합친 조선정구협회가 결성되었고, 1948년 9월에는 정식으로 세계정구연맹에 가입하였다. 그후 1955년 9월 테니스협회와 연식정구협회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순천에서는 매산학교 선교사들이 1920년대에 테니스를 시작하였다. 이곳 출신 유학생들이 고향에 내려와 테니스를 즐겼으나 조직화되지 못했고, 1970년대 초반까지 특별한 지도자나 기량을 갖춘 선수 없이 건강을 위한 자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1974년에는 테니스협회가 정식 창설되어 초대 회장에 송용길이 피선되었으며, 이해 9월부터 연 3회에 걸쳐 순천지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체육은 1973년 강빈영 체육교사가 순천여중에 테니스부를 창단하였으며, 1974년에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소년체전에서 여자중학부 3위에 입상하였다. 한은숙 선수는 1981~1987년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를 지내며 국위를 선양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이수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정필·박용근 복식조가 한일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14세부 복식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테니스 지도자 김정윤은 테니스 이론 및 기술을 독학으로 터득하여 30여 년 동안 학교 테니스팀 및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1985년 제3차 한국실업연맹 전국테니스대회 및 1987년 9월 낫소컵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생활체육 테니스 회원이 꾸준히 늘어 26개 클럽에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체육으로는 현재 동산여중과 남산중학교에서 테니스팀을 육성하고 있다.